

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2023. 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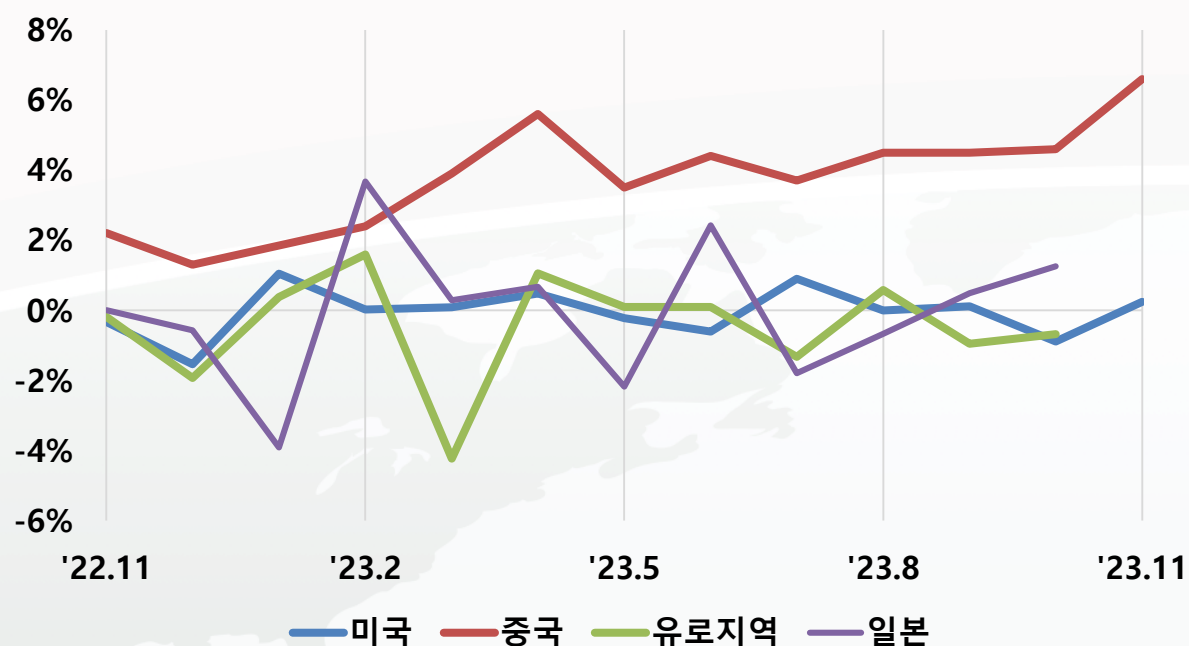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세계 경제동향

■ 주요국 경제동향 : 미국 둔화 가능성 확대, 중국 경기 소폭 회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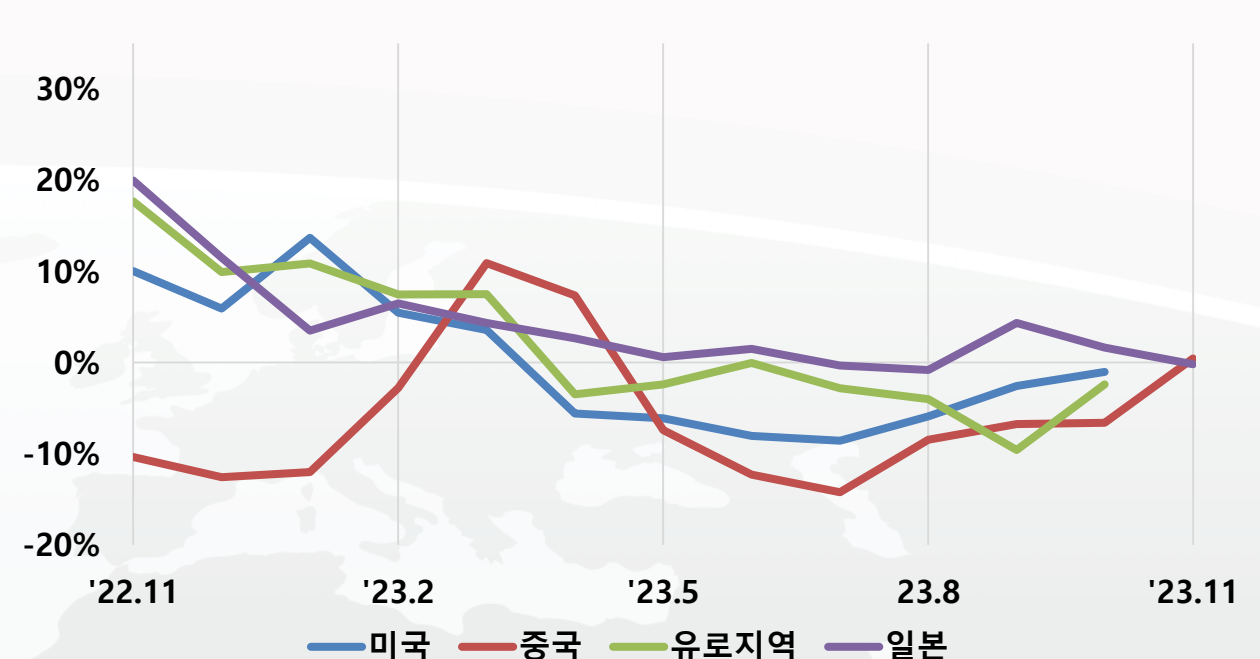
- **(미국) 생산 및 고용 시장 견조세 유지, 물가 완만한 안정세 지속**
 - 11월 산업생산(+0.2%) 2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, 소매판매(+0.3%)도 증가세로 전환
 - 11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폭(+19.9만명) 전월(+15.0만명) 대비 확대, 실업률(3.7%)은 전월 대비 0.2%p 하락
 -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(전년동월 대비)은 유가 안정화, 고금리 영향으로 +3.1%로 하락, 근원물가 상승률(4.0%)은 전월과 동일
- **(중국) 11월 생산, 소비, 수출 개선세 지속 등 다소 경기회복 양상**
 - 11월 산업생산 증가율 +6.6%(전년동기 대비)로 전월 대비 큰 폭 상승,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+2.9%(전년누계비)로 전월과 동일
 -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 대비 +10.1%로 전월(+7.6%)대비 상승, 수출은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(전년동기 대비 +0.5%)
- **(유로존)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, 생산 및 소비 부진 지속**
 - 10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△0.7%)로 2개월 연속 감소, 소매판매 전월 대비 증가율 +0.1%로 4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
 -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.4%로 전월(2.9%)대비 하락, 유로존 11월 산업 PMI(47.6)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소폭 개선
- **(일본) 10월 생산 회복, 소비 큰 폭 감소, 수출 감소세로 반전**
 - 10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.3% 증가, 10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1.6% 감소, 11월 수출(엔화 기준) 전년동기 대비 0.2% 감소

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 기준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원계열 기준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
자료 : Bloomberg

국내 경제동향

■ 산업 활동 : 광공업·서비스업 생산 감소, 경기 선행종합지수는 2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

- (생산) 10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·서비스업·공공행정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1.6% 감소
 - (광공업 : $\Delta 3.5\%$) : 전자부품(+10.4%) 등에서 늘었으나, 반도체($\Delta 11.4\%$), 기계장비($\Delta 8.3\%$) 등에서 감소
 - (서비스업 : $\Delta 0.9\%$) : 정보통신(+1.3%) 등에서 늘었으나, 도소매($\Delta 3.3\%$), 금융·보험($\Delta 1.2\%$) 등에서 감소
- (경기) 10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99.7p)는 코스피 등은 하락했으나,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해 전월대비 0.3p 상승(기준치 100)

■ 수출 동향 : 반도체·자동차·일반기계 등 호조로 2개월 연속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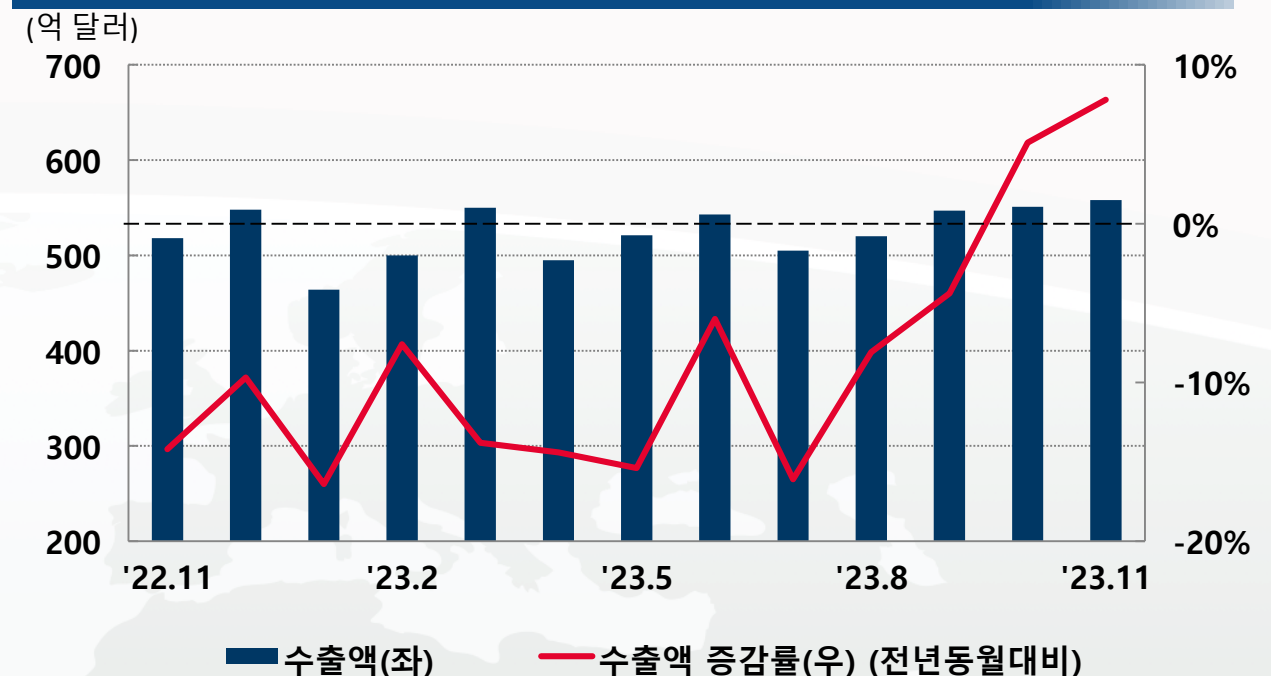
- 11월 총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 경신한 558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7.8%), 무역수지(+38.0억 달러)도 6개월 연속 흑자
 - 반도체(+12.9%)는 16개월만에 증가 전환, 자동차(+21.5%), 일반기계(+14.1%), 석유화학(+5.9%) 등도 호조세 지속
 - 자동차·일반기계 호조로 미국(+24.7%) 증가 지속, 중국($\Delta 0.2\%$)도 반도체 수출 증가로 월 기준 올해 최대 수출액 기록

전산업생산지수 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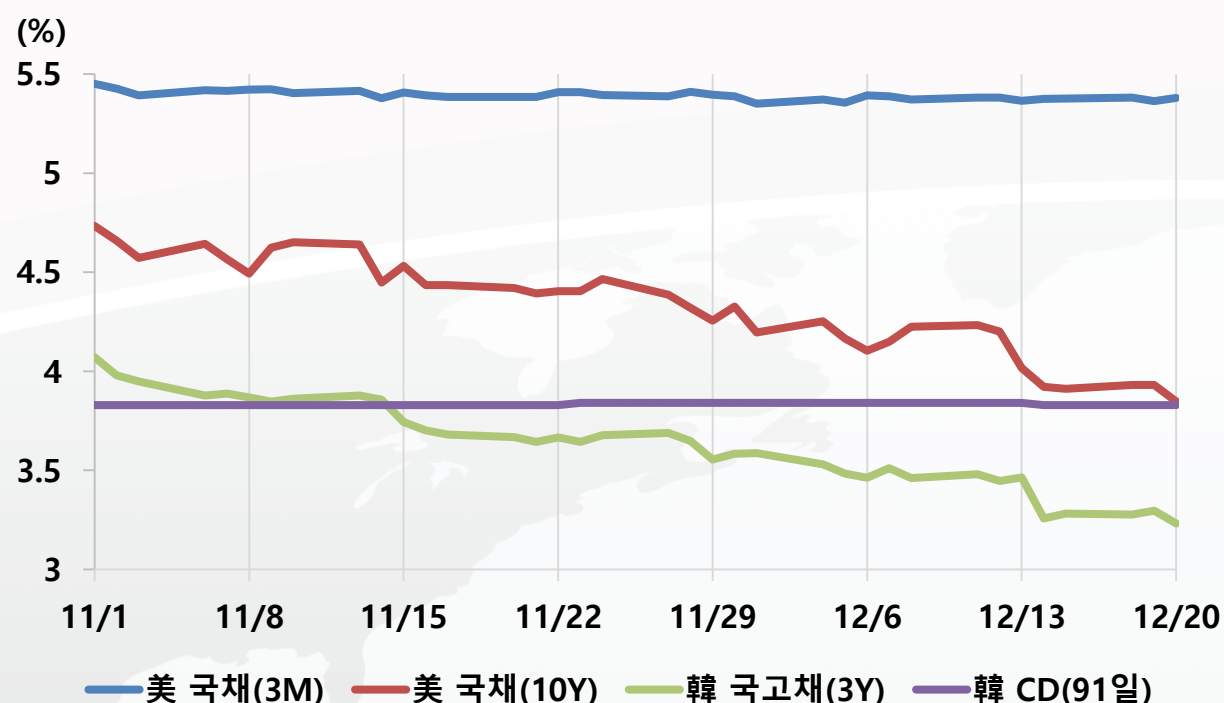
■ 금리 : 미국 물가 안정세 지속 및 미연준의 금리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약화로 하락

- (미국) 미국채 금리(10년물)는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의지 약화를 확인하며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3.9%대 기록. 미연준은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가 너무 높다고 판단
- (한국) 국고채 금리(3년물)는 한국은행 총재의 고금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언급 등에도 불구하고 미금리 하락 영향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며 3.2%대 기록

■ 환율 : 미국채 수익률 하락 등으로 미달러화 약세 반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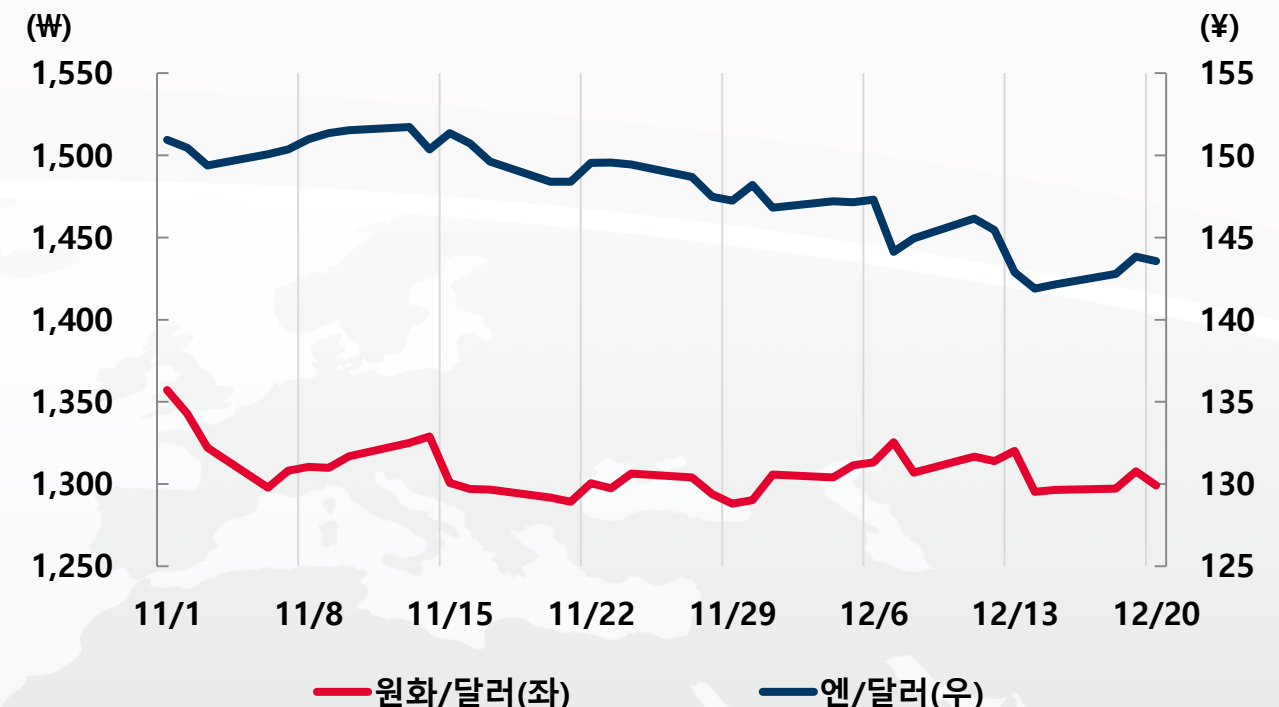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원/달러 환율은 미금리 하락에 따른 미달러화 약세, 수출 증가세 반전, 무역수지 흑자 유지 등으로 1,290원/달러 대로 하락한 이후 소폭의 등락을 보이며 횡보세
- (엔/달러 환율) 엔/달러 환율은 미달러화 약세와 일본은행의 저금리 정책 중단 가능성 확대로 142엔/달러(12/14)로 하락한 이후 일본은행이 기존 정책 유지 발표로 144엔/달러 대로 소폭 상승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한국은행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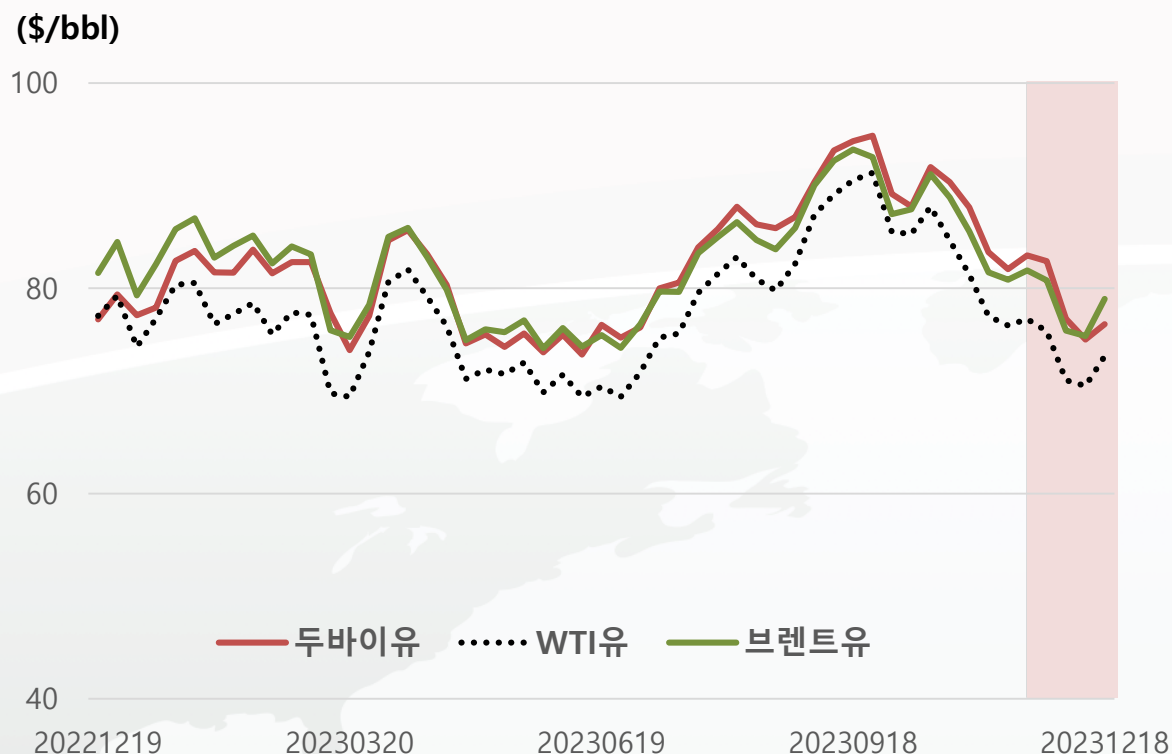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

원유와 천연가스 가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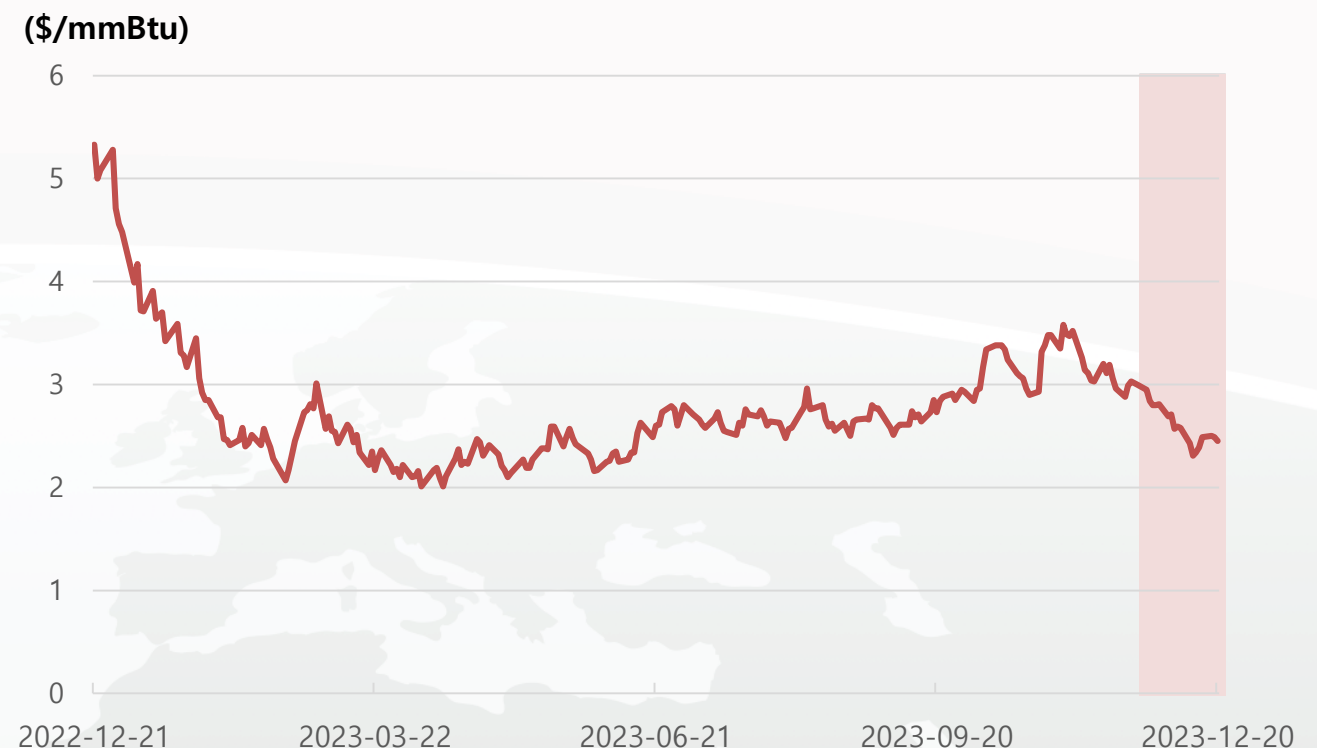
■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로 하락, 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2달러 초중반대로 하락

- (원유) OPEC+ 추가감산 결정(12/1일)에 대한 시장 실망감,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며 배럴당 70달러 초반대로 하락(\$71.63/bbl, 12/13일), 이후 홍해 지정학적 우려 확대로 70달러 후반대로 상승(\$79.06/bbl, 12/20일)
 - OPEC+가 내년 1분기까지 220만 b/d의 자발적 추가감산을 발표했으나 기존 사우디,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물량(150만 b/d)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70만 b/d 내외 수준의 규모로 시장 기대에 못 미치고, 실제 감산 이행에 대한 회의감도 확산
- (천연가스) 예년 대비 온난한 동절기 날씨로 인한 난방용 천연가스 수요 둔화 등 저조한 수요 전망과 전년대비 약 10% 높은 수준의 미국 천연가스 재고 등이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(\$2.31/mmBtu, 12/12일)
 - EIA에 의하면 미국 천연가스 재고는 전년동기 대비 10.1% 높고 5년 평균 대비 8.6% 높은 수준 기록(11/24)

국제유가 추이



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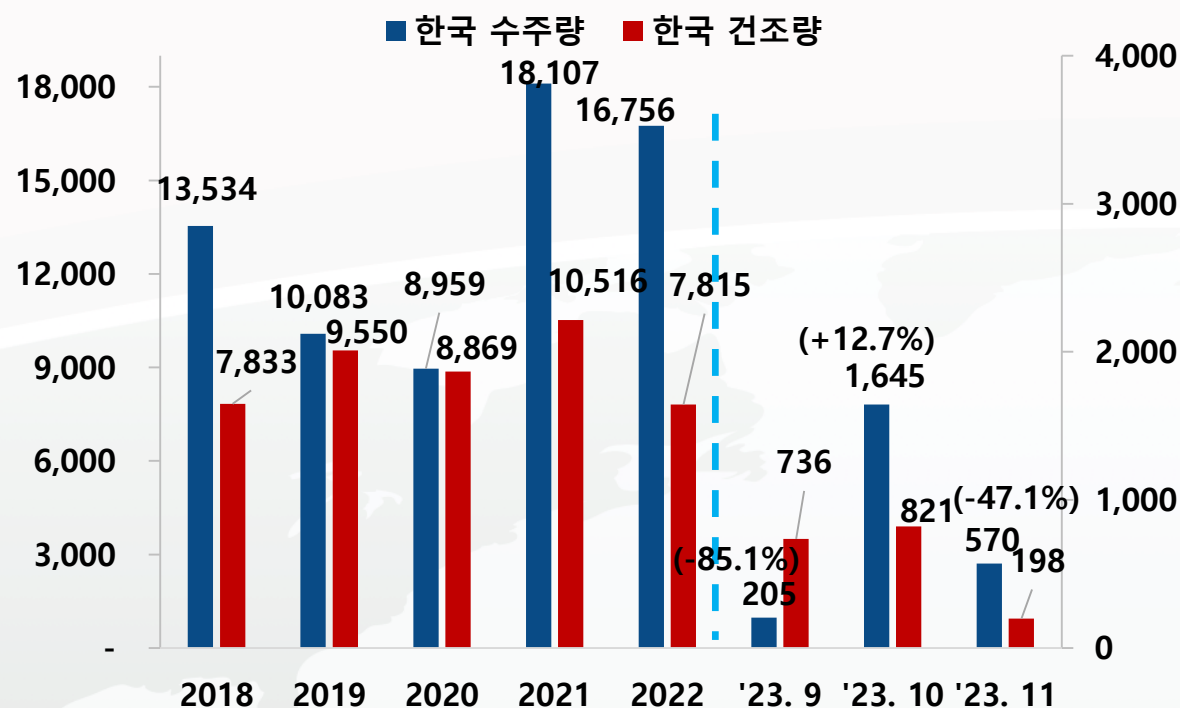
자료 : Koreapds(유가는 주간 가격,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)

11월 세계 발주량, 국내 수주량 모두 부진

- 11월, 세계적으로 다양한 선종이 발주되었으나 많지 않은 물량이었으며 국내 수주도 부진함
 - 11월 세계 발주량은 159만CGT(전년동월 대비 $\Delta 52.7\%$), 11월 누적 발주량은 3,809만CGT(전년동기 대비 $\Delta 20.3\%$)
 - 11월 한국 수주량은 57만CGT(전년동월 대비 $\Delta 47.1\%$), 누적 수주량은 963만CGT(전년동기 대비 $\Delta 41.0\%$)
 - 11월 한국 수주액은 19.0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$\Delta 34.1\%$), 누적 수주액은 281.3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$\Delta 34.7\%$)
 - 11월 발주 수요는 카타르발 LNG선 계약이 협상 중인 가운데 부진한 수준
 - 한국은 대형 암모이나 운반선을 다수 수주하였으나 아직 카타르 LNG선 수주가 계약되지 못하며 극히 부진한 수주를 기록
- 11월 선박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정상 궤도에 오른 수준은 아님
 - 11월 수출액은 15.5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$+38.5\%$), 11월 누적 수출액은 182.7억달러(전년동기 대비 $+16.5\%$)
 -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위주의 인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생산시스템 정상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

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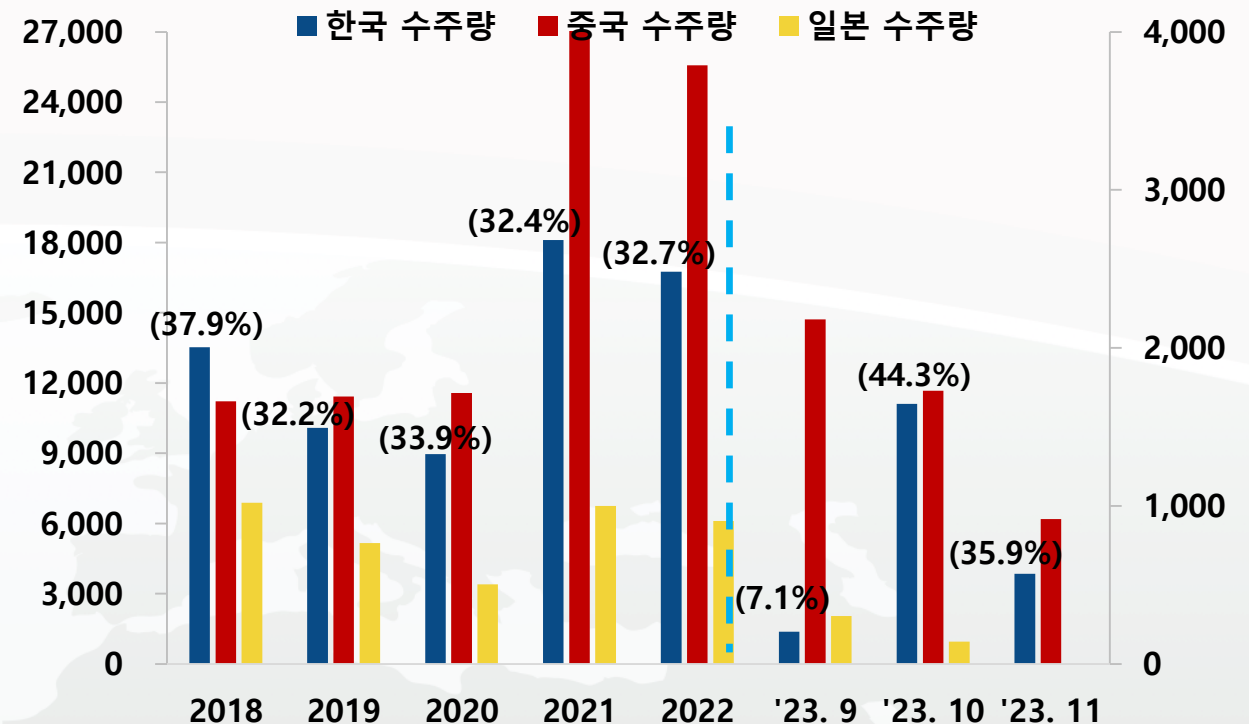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자료 : Clarkson

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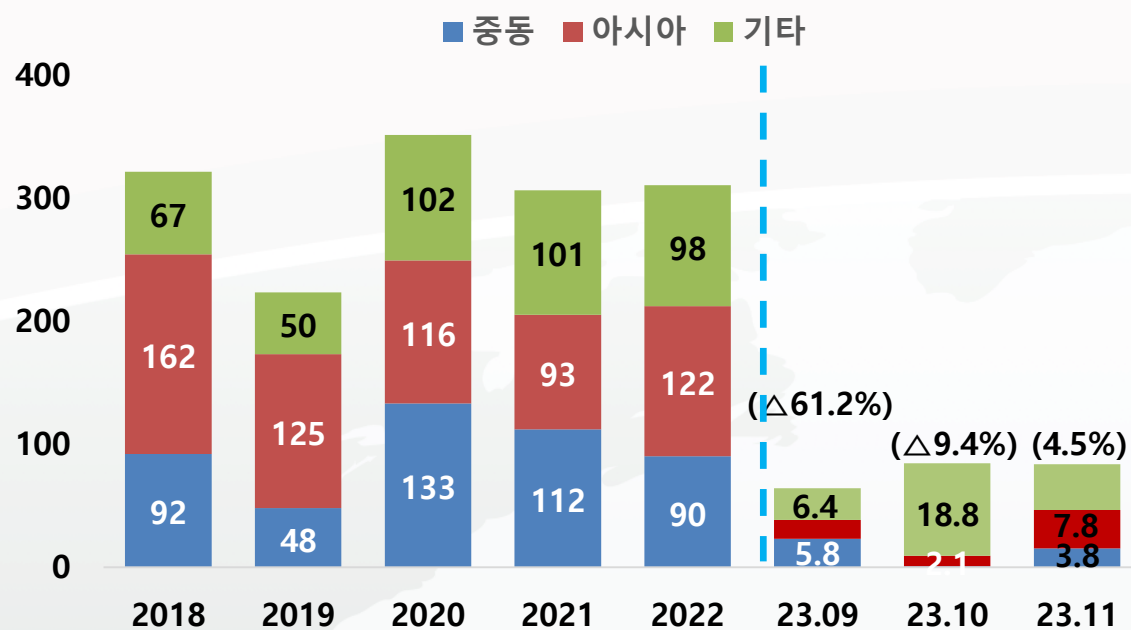
주 : 괄호 안은 당해연도 및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
자료 : Clarkson

■ 11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4.5% 증가한 20.9억 달러

- (지역별) 아시아 7.8억 달러, 유럽 5.9억 달러, 중동 3.8억 달러, 북미 2.1억 달러 순
- (공종별) 플랜트 9.8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Δ 13.3%), 건축 5.0억 달러(+51.5%), 토목 0.6억 달러(+7.1%)
- 11월까지 누적 수주액은 27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.3% 증가한 상황으로 중동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11.4% 증가한 83.9억 달러, 북미 수주액은 94.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73% 증가
 - 공종별 수주액은 플랜트 120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5.3%), 건축 114.1억 달러(67.6%), 토목 15.4억 달러(Δ 71.7%)를 기록
- 11월까지 누적 수주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올해 수주액은 목표액 350억 달러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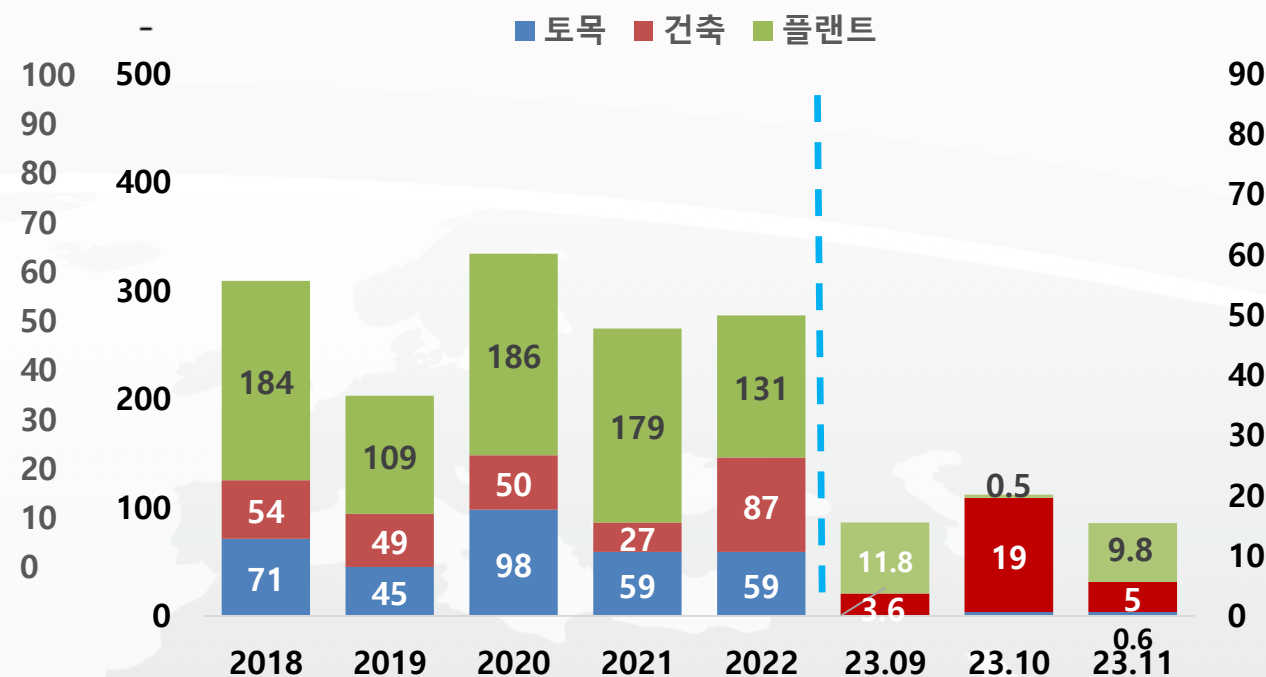
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
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반도체·디스플레이

■ 11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증가율, 각각 전년동월 대비 +10.7%, +3.7% 기록

•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0.7% 증가한 95.6억 달러로 16개월만에 증가 전환
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D램 가격 반등, 수요개선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6.4% 증가한 52.4억 달러 기록, 2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

* D램 고정거래가격(DDR4 8Gb기준, 달러) : ('22.11)2.21 → ('23.8)1.30 → (11)1.55 (트렌드포스)

** 반도체 수출물량지수(2015=100) : ('22.10)332.40 → ('23.7)358.53 → (10)401.25 (한국은행)

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8.1% 감소한 38.9억 달러 기록

*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1% 감소한 28.8억 달러, 아날로그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% 증가한 9.7억 달러 기록

** 시스템반도체 수출물가지수(2015=100) : ('22.11)90.4 → ('23.8)76.9 → (11)74.8 (한국은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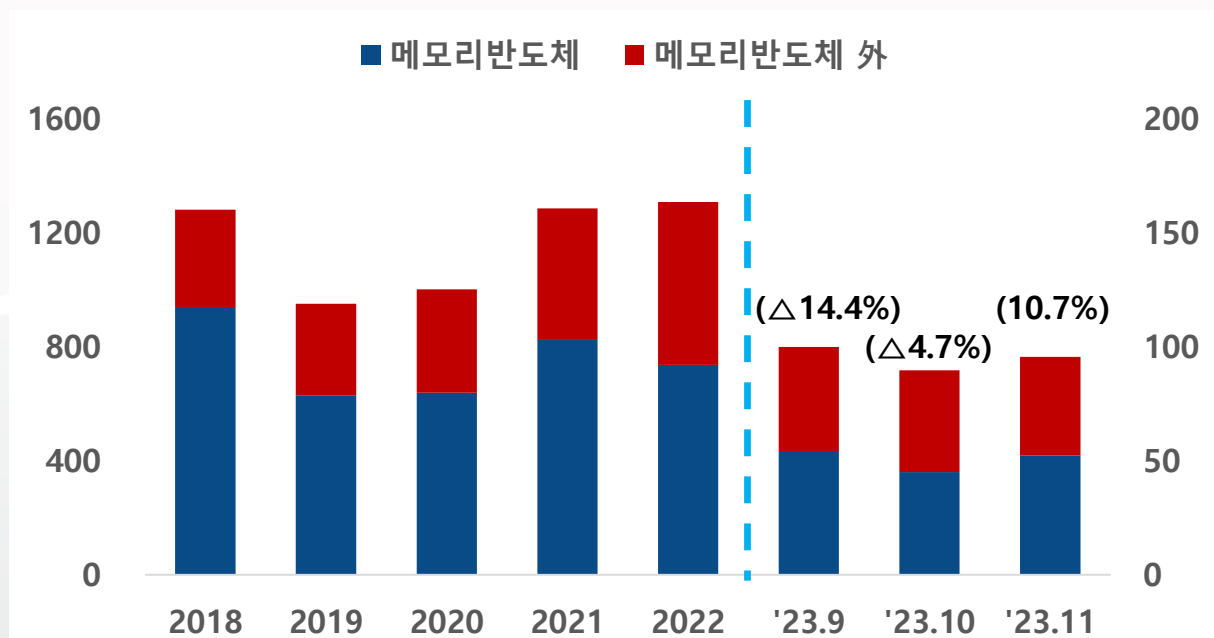
•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.7% 증가한 20.8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전년대비 수출 증가

- OLED 수출은 모바일 및 IT용(노트북 등)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.4% 증가한 14.억 달러 기록

* OLED 수출물가지수(2017.12=100) : ('22.11)54.6 → ('23.8)50.2 → (11)49.8 (한국은행)

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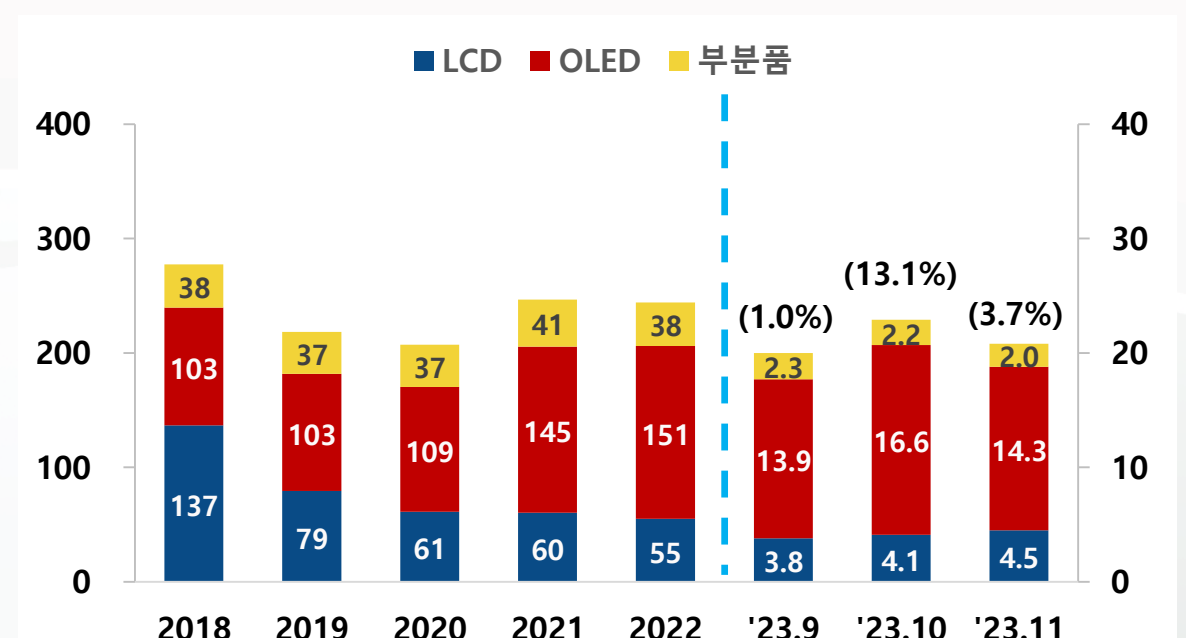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디스플레이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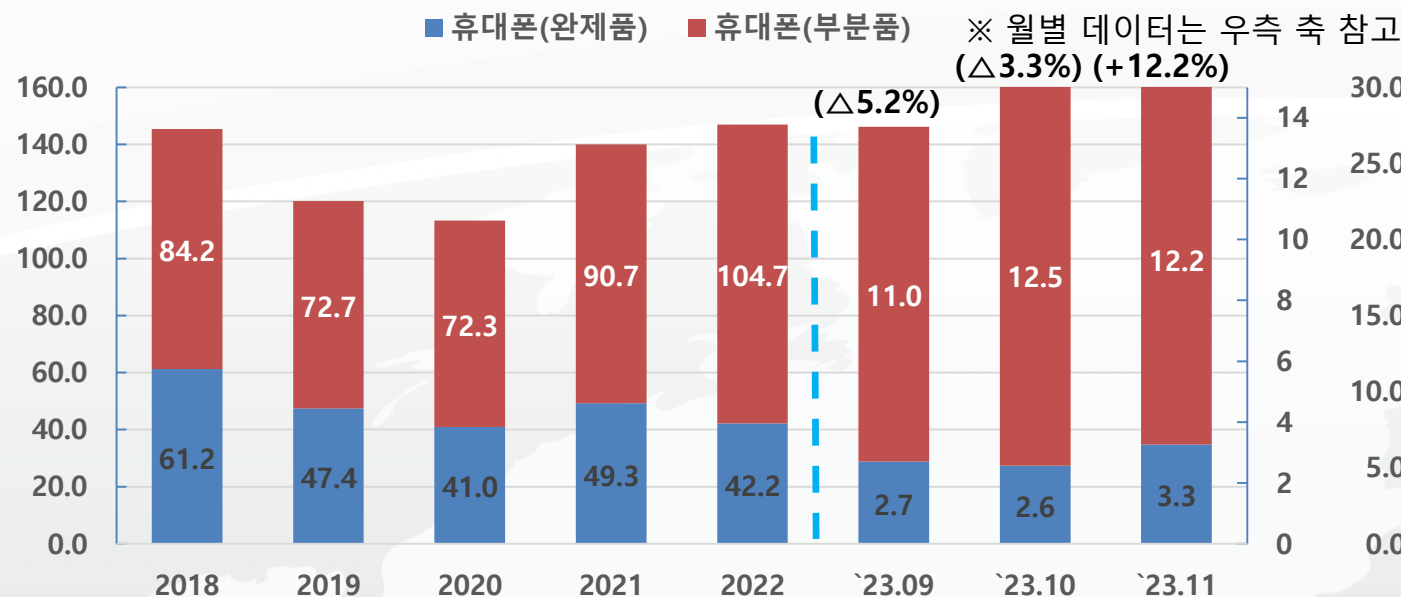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■ 11월 휴대폰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12.2% 증가, 통신장비 수출액은 22.8% 감소

- **휴대폰 수출은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ICT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12.2% 증가한 15.5억 달러 기록**
 - (완제품) 북미 수출이 지속되고 아시아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되며 전년동월 대비 16.0% 증가한 3.3억 달러 기록
 - * 11월 주요지역 스마트폰 수출액: 북미(1.27억 달러, 전년동월 대비 +94.1%), 유럽(1.57억 달러, △18.8%), 아시아(0.35억 달러, +137.9%)
 - (부분품) 중국, 베트남, 필리핀 등 주요 완제품 생산기지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동월 대비 11.3% 증가한 12.2억 달러 기록
 - * 11월 對중국 부분품 수출액은 9.4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.8% 증가, 베트남은 1.7억 달러로 7.1% 증가하는 등 주요 생산국 부품 수요증가
- **통신장비 수출은 전반적인 부품 수요가 감소하며 전년동월 대비 22.8% 감소한 1.44억 달러 기록**
 - (기지국 장비) 완제품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부품 수출감소세가 확대되며 전년동월 대비 81.5% 감소한 897만 달러 기록
 - * 최근 3개월간 기지국 부품 수출액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: △6.6%(9월), △57.8%(10월), △83.8%(11월)
 - (중계기·모뎀)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2.0% 감소한 1.35억 달러 기록
 - * 11월 주요국 중계기·모뎀 및 부품 수출액: 미국(2,119만 달러, 전년동월 대비 △25.2%), 베트남(2,927만 달러, △7.5%), 일본(1,585만 달러, +26.8%)

휴대폰 수출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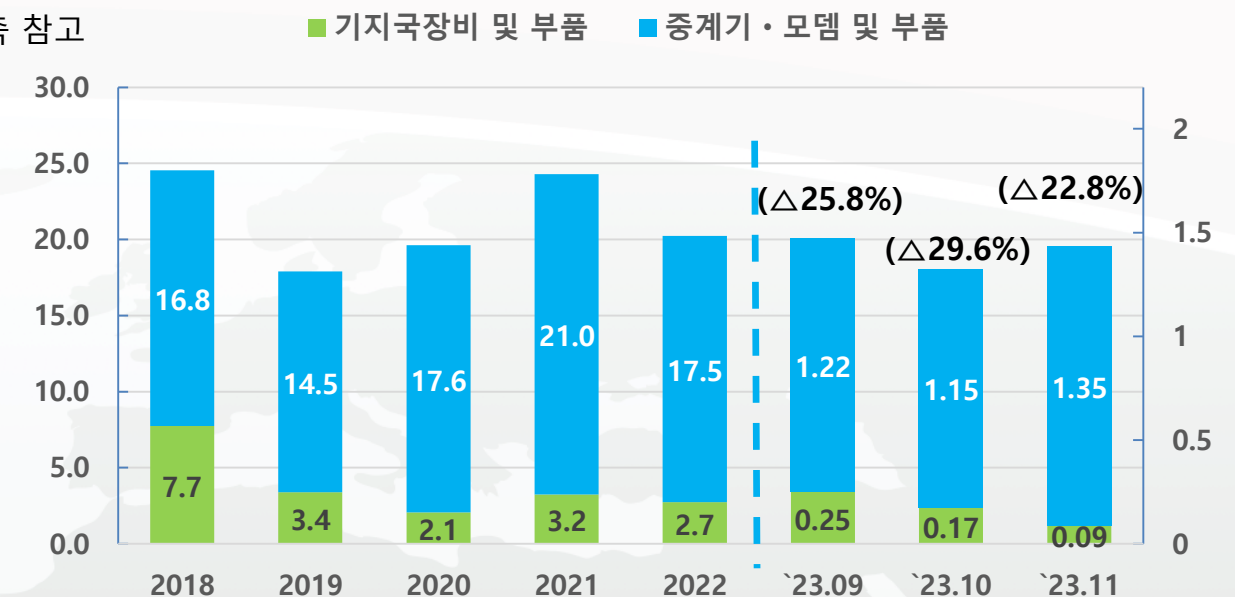
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, 산업통상자원부

통신장비 수출액

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